

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

많은 뉴스 기사의 타이틀 중 2016 수능의 특징을 포착한 표현은
“물수능 속의 불수능”
인 듯 합니다.

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은

A형 21번, 30번

B형 21번, 29번, 30번

이지만

A형 21번, B형 29번은 기출유형이 그대로 반복된 문제로
기출+실모 학습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현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끌어올려 불수능 느낌을 줄만 했던
A형 30번, B형 21, 30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

A형 30번 - 예상을 깨고 등장한 부등식의 영역

순서쌍(혹은 수열)의 개수 세기로 출제될 것을 누구나 예측하고 있던 30번에 모든 이들이 예상을 뒤엎고 부등식의 영역이 나왔습니다. 순서쌍 (a, b) 의 a, b 가 모두 실수이므로 애초에 개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a, b 에 관한 부등식은 좌표평면의 일부 영역이 되며, 이 영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은 수학(하) 부등식의 영역의 핵심 개념입니다.

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매우 낯선 문항을 만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3학년부턴 급하게 시작한 학습으로는 커버하기 힘들었을 문항입니다.

B형 21번 - 핵심적인 풀이부분의 생소함

이 문항의 핵심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.